



이우균(철학 2013)

엇인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재정 지원부터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실 때문에 안 된다는 데 같은 것이 느껴져 많이 답답하다.”

강하게 말하면 대형강의할 것이라면, 후마 하지 말아야 한다.

- 최현웅

최현웅 “대형강의가 진행되면 그건 겉으로만 ‘우리 멋진 거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갔을 때 1시간과 100명이 들어갔을 때 1시간 수업은 개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크다. 강하게 말하자면 대형강의할 것이라면, 후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마와 전공교육 혹은 진로, 취업 등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관련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 다만 최근 불거지는 진로나 취업에 맞춰 교양교육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렇다면 정말 실망할 것”, “교수님들끼리 그런 이야기한다면 충격받을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였다. 따라서 후마가 추구하는 교육목적은 유지하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집담회 동안 나온 주된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현호 위원장은 여리차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교양교육의 성과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집담회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생만 참여했기 때문에, 전공이나 진로 등과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어려웠다. 다만 집담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지난 2011년부터 후마와 관련된 문제로 꼽혔던 것과 같은 논점에서 주장됐고, 그 대안 역시 동일하다는 점은 앞으로 후마의 변화를 위한 평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4년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했던 것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은 ‘후마’의 몫으로 남았다.

교양교육이 어느 수준인지 냉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 장현호

후마니타스 칼리지 만족하지만 이공계는 “힘들어요”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권오윤 기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해 우리신문에서 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3.5%(33명)이 ‘매우 만족’, 39.4%(84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중 52.9%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반에 걸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3.9%(51명)가 ‘보통’, 14.6%(31명)가 ‘불만족’, 6.6%(14명)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르치는 중핵교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15.5%가 ‘매우 만족’, 37.1%가 ‘만

족’으로 응답해, 총 5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통’ 25.8%, ‘불만족’ 33명 15.5%, ‘매우 불만족’ 15.0%의 결과를 보였다. 시민교육 교과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17.3%, ‘만족’ 26.3%, ‘보통’ 25.8%, ‘불만족’ 15.5%, ‘매우 불만족’ 15.0%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이 이공계열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한 ‘만족도’, ‘전공과목과의 상관정도’, ‘진로와의 상관정도’ 영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계열 응답자 127명 가운데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에 답한 응답자는 61.4%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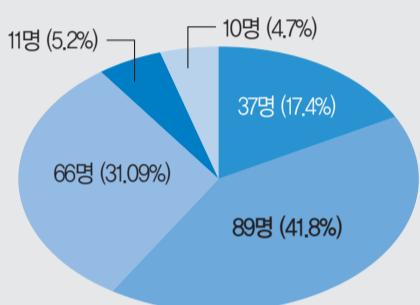
반면 이공계열은 응답자 62명 가운데 40.3%만이 ‘매우 만족’과 ‘만족’한다고 응답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만족도가 21.1%pt 낮았다. ‘전공과목과의 상관정도’도 인문사회계열 36.2%, 이공계열 4.8%를 보여 인문사회계열이 31.4%pt나

높았다. ‘진로와의 상관정도’ 또한 인문사회계열 37.8%, 이공계열 16.1%로 나타나, 인문사회계열이 21.7%pt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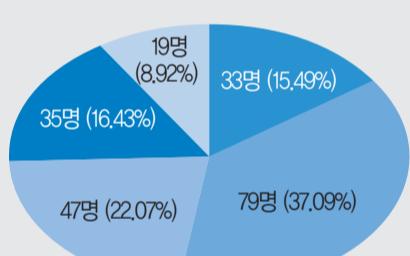
한편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학생들이 사색하며 토론하는 수업이 아닌 교수의 고리분분한 책읽기 수업이 됐다’, ‘성적이 교수님마다 다른 성향과 강의 방식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강의에 대한 표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등이었다. 시민교육 교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중핵교과의 방대한 교재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유발’과 ‘필요성 인지’가 주를 이뤘다. 특히 흥미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강조하는 답변이 상당수 존재해, 현실적으로 강좌 수 증설과 강의방식 변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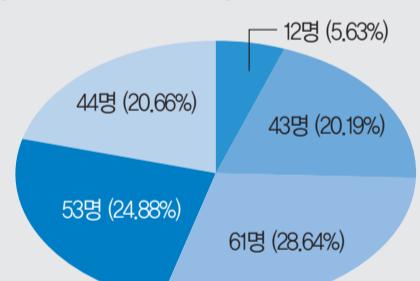
〈후마의 교양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마의 중핵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보통이다 ■ 부정적이다 ■ 매우 부정적이다

■ 인문사회계열

23명 (18.1%)	58명 (45.7%)	27명 (21.3%)	13명 (10.2%)	6명 (4.7%)
5명 (8.1%)	20명 (32.3%)	19명 (30.6%)	11명 (17.7%)	7명 (11.3%)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불만족한다 11명 (5.2%) ■ 매우 불만족한다

■ 인문사회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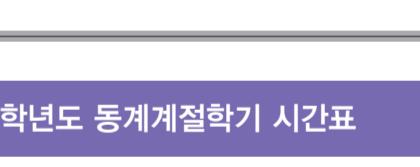
26명 (18.1%)	52명 (45.7%)	26명 (52.0%)	14명 (11.0%)	9명 (7.1%)
2명 (3.2%)	23명 (38.0%)	15명 (24.2%)	15명 (24.2%)	7명 (11.3%)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 매우 낮다

■ 인문사회계열

14명 (11.0%)	9명 (7.1%)	37명 (29.1%)	41명 (32.3%)	26명 (20.5%)
3명 (4.8%)	14명 (22.6%)	21명 (33.9%)	24명 (38.7%)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보통이다 ■ 부정적이다 ■ 매우 부정적이다

■ 인문사회계열

14명 (11.0%)	9명 (7.1%)	37명 (29.1%)	41명 (32.3%)	26명 (20.5%)
3명 (4.8%)	14명 (22.6%)	21명 (33.9%)	24명 (38.7%)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 매우 낮다

■ 인문사회계열

14명 (11.0%)	9명 (7.1%)	37명 (29.1%)	41명 (32.3%)	26명 (20.5%)
3명 (4.8%)	14명 (22.6%)	21명 (33.9%)	24명 (38.7%)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정원	장소	영어강	[국제]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대학	이수구분		
응용과학대학	전공기초	AMTH1001-01	미분방정식	전민수	1교시	09:00~11:45	57	전221		2014/12/22~2015/01/02	GEC1101-G02	우리가사는세계	
		AMTH1001-02	미분방정식	후민기	세재현	1교시	09:00~11:45	57	전204		2015/01/05~2015/01/14	GEB1101-G01	글쓰기1
		AMTH1002-01	미분적분학1	김현경	후민기	1교시	09:00~11:45	46	전223		2015/01/05~2015/01/14	GEB1101-G02	글쓰기1
		AMTH1002-02	미분적분학1	후민기	최진혁	1교시	09:00~11:45	46	전101		2015/01/05~2015/01/14	GEB1101-G03	글쓰기1
		AMTH1003-01	미분적분학2	김현경	후민기	1교시	09:00~11:45	46	전102		2014/12/22~2015/01/02</		